

공동체 소식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수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주간 전례 안내

- 3/25(일) 오전11:00, 주님 수난 성지 주일(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미사)
 - 3/27(화) 오전11:00, 교구 성유축성 미사(본당 저녁 미사 없음)
 - 3/29(목) 저녁 8:00,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가난한 이들을 위한 2차 헌금, 발씻김 예절, 미사 후 성체조배)
 - 3/30(금) 오전10:00, 십자가의 길 기도, 저녁 8:00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절(예루살렘 성지복구 헌금, 십자가 경배)
 - 3/31(토) 저녁 8:00,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 4/ 1(일) 오전11:00, 예수 부활 대축일(라이스보울 봉헌)
- ※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후, 성체조배 신청을 받습니다.

성주간 전례봉사자 명단

	해설자	독서	복사
3/29 성목요일	김명은 안젤라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프란치스코
3/30 성금요일	김주연 세실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리드비나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3/31 부활성야	박태주 로마노	1독서-강영진 라파엘 3독서-한춘희 라파엘라 5독서-홍순익마르티노 7독서-최은미 아네스 서간 -박희영카타리나	김정원 안젤라 차민서 임마누엘 고평원프란치스코 이원준 요한
4/1 부활 대축일	최은미 아네스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월정기회의
- 일시: 3/25(주일), 교중미사 후.

부활절 맞이 성당 대청소

- 일시 : 3/25(주일) 교중 미사 후, 식사 전.

부활 대축일 전례꽃 봉헌 안내

- 내용: 전례부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3/25)	122	221	169	123
3/29 성목요일	118	122	490	-
3/30 성금요일	-	122	163	-
3/31 부활성야	-	129	165	134
차 주 (4/1)	130	129	175	134

전례 봉사자 및 복사

	해설자	제1독서	시중 복사
		제2독서	향 복사
금 주 (3/25)	박태주 로마노	강영진 라파엘	김정원 안젤라
		한춘희 라파엘라	고평원프란치스코
차 주 (4/1) 부활절	최은미 아네스	김정원 베드로	정예진 한나
		김말자 세실리아	정예찬 미카엘

애찬 봉사자

금 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차 주	부활대축일 - 행사 2조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라우렌시오
차 주	이내일 베드로, 이우열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우금
3/18	48 명	199 달러	100 달러
(총 1세대)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in Kansas C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난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는 파스카의 신비에 동참합시다.

그림 묵상

‘주님의 수난’

군중들의 환호 속에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시는 모습 뒤에는 예수님의 수난이 어두운 그림자로 덮여옵니다. 군중과 제자들의 인간적인 기대가 물거품이 된 순간, 그들로부터 받은 배신과 조롱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군중 속에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그림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0,4-7

<나는 모욕을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2,6-1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15,4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승리

“이제 저는 얼마 못 살 터이니 추기경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낼게요.”

지난 2011년 어느 날, 이점홍 골롬바 할머니가 당시 교구장이던 정진석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당시 92세였던 할머니의 손에는 통장이 한가득 들려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11억 원을 아무 거리낌 없이 기부하고 추기경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잔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골롬바 할머니는 구면이였습니다. 할머니는 1995년, 지금의 교구 노동사목회관이 세워진 부지를 교구에 기증하셨습니다. 2005년에는 본인이 살던 종로구 돈의동 자택을 교구에 내놓으셨습니다. 당시 시가로도 수백억이 넘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7남매 장녀로 태어난 할머니는 9살부터 공장에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받은 점심도 혼자 먹기 아까워 가방에 넣어두고 저녁에 집에 가져갔을 정도로 절약하며 생활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샅바느질을 하며 부모님과 형제들, 조카들까지 부양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유일한 소원은 하느님께서 저를 잠자는 것처럼 조용히 데려가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소원대로 지난 2월 7일 향년 98세로 평안히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사셨기에 돈의 가치와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돈은 눈물과 고통의 열매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세속에서는 마치 죽음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골롬바 할머니는 그 순간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승리자처럼 빛이 났습니다.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생각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로마를 정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힘을 갖고 구세주로

입성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세속적인 성취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초월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와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없이 십자가의 길에 오르시고, 수없이 많은 모욕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십자가의 길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인류에 대한 사랑과 희생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리포 멤미의 ‘예수와 십자가’

말씀의 이삭

어머니께 청하오니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일치’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외국 여행 중에 주일 미사를 참례할 때마다 느끼는 감동에는 또 다른 ‘일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일치의 감동’이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어도 안 통하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마치 내 집처럼 들어가 나의 가족들을 만난 것처럼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한 시간 가량을 보내고 나오는 그 기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알렐루야, 아알렐루야아, 알렐렐루야아’를 노래하고 나면 신기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도 안 통하는 이 사람들과 제가 그 오랫동안 같은 노래를 부르며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치의 감동’이 만만치 않게 강렬합니다. 이 ‘일치의 감동’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에게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넘는 그 오래된 기도문을 우리는 지금도 거의 그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삼일의 첫날 목요일의 ‘주님 만찬 저녁미사’에서 영성체 후에 성체를 옮겨 모시는 행렬 때 ‘입을 열어 구세주의’를 노래합니다. 이노래는 라틴어로 ‘판제 링구아’(Pange lingua)라고 하며 성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은 찬미가이므로 약 800년 된 노래입니다. 이 선율을 바탕으로 후대 작곡가들은 여러 아름다운 성가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금요일에 바치는 ‘주님 수난 예식’ 때 사제가 “보라 십자 나무”라고 선창하는 ‘에체 리눔 크루치스’(Ecce lignum crucis)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1000년은 넘는 성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은 성가가 그대로 전승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저는 ‘일치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오래전 저 멀리 유럽의 성당에서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14처를 옮길 때마다 노래하는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는 그 가사와 선율이 최소한 700년이 넘는 것입니다. 가사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9월15일) 때 노래하는 성가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이며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초기 고전주의 이탈리아 작곡가인 페르골레지의 명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예수 높이 달린 십자곁에 성모서서 비통하게 우시네”로 시작하는 이 부속가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그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가가 성금요일 일주일 전 금요일에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주간 동안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할 때 세계 곳곳의 많은 신자들이 오래전부터 그랬듯이,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 예수님을 보고 비통해하시는 성모님의 마음으로 길을 따라갈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또 다른 ‘일치의 감동’ 후에 맞이하는 부활절이 매우 특별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허영한요셉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교리상식

십일조의 유래가 뭔가요?

구약과 신약성경 여기저기에 십일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톨릭에도 엄밀한 의미의 십일조는 아니지만, 미사 때 바치는 헌금 외에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바로 십일조에서 유래한 교무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무금의 목적은 교회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목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무금의 근본 취지가 교회가 사목을 원활히 하도록 힘을 모으자는 데 있으니, 각자의 처지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봉헌하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교리상식 | 바오로말 발행